



21일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입구에 마련된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특설무대에서 제주어밴드 두림브라더스가 공연을 하고 있다.



21일 열린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체험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친환경 목공 체험을 하고 있다.

“거문오름 가는길... 음악이 있어 더욱 행복”

2019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어제 특설무대에서 문화행사 두림브라더스·더 로그 등 다양한 공연 탐방객 호응 친환경 목공 등 체험 다채

시 멈춰섰다. 흥겨운 멜로디에 몸을 흔들다가 유연한 몸짓에 손박수를 치기도 했다. 입가엔 웃음이 가득했다. 바로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다. 이날 오전 9시30분 시작된 무대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주민들이 주인공인 화려한 라인댄스로 문을 열었다. 최신곡에 맞춘 몸짓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화려한 합덕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마을주민과 이주주민들이 함께하는 동아리다. 최인영 회장이 강명지씨(46)는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무대는 올해 두번째”라면서 “다들 직장을 다니는 데도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연습했

다. 특별한 행사의 무대에 오르게 돼 보람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제주어밴드 두림브라더스가 제주어 자작곡 ‘웃당보민’ 등을 부르며 관객과 호흡했다. 무대의 마지막은 어쿠스틱 듀오이자 제주밴드인 더 로그가 장식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부르며 작은 공간을 따뜻한 감성으로 물들였다. 매년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행사 찾는다. 탐방객 이정훈씨(44·제주시 아라동)는 “음악이 있어 더욱 행사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다”며 “걷는 것을 즐겨하는데 더욱 상쾌하고 청량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체험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돼 탐방객들의 흥미를 모았다. 향토음식 판

매점을 비롯해 천연염색, 친환경 목공 등의 체험부스와 까망고띠 제품 시식과 도라지즙 홍보 부스 등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특히 뇌교육 명상기관인 단월드의 무료 치료와 페트병을 이용한 무료 화분 나누주기 부스 등은 체험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한편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기간 중 공연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다. 오는 27일에는 오전 10시30분 선인분교 풍물패, 오전 11시 어반NJ의 무대를 진행한다. 폐막날인 2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라인댄스, 시크릿코드, 재즈듀오 재스민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40년 무사고’ 기록 남기고... 제주 경찰헬기 퇴역



40년 넘게 임무를 수행한 제주 경찰헬기.

경찰 인재개발원에 전시
제주도 경찰항공대는 미국 벨 헬리콥터사에서 제작된 B-212 기종을 지난 15일자로 퇴역시켜 경기도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전시한다고 19일 밝혔다. B-212는 1980년 1월 제작돼 경찰헬기로 사용됐으며, 1995년 5월 10일부터 제주경찰 항공대로 편성돼 40년 넘게 무사고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대한민국 관용헬기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송은범기자

제주의 강한 바람과 한라산 고지대의 변화무쌍한 날씨 변화에도 B-212는 대테러 작전, 산불진화, 공중 순찰 및 실종자 수색, 응급환자 이송, 경찰 작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02년 월드컵과 2008년 ASEM 재무장관회의 당시 대테러 작전, 2001년 한라산 헬기추락 공중수색, 돌고래호 전복 항공수색 등을 펼쳤다. 한라산과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에도 나서 총 298명을 이송했다. 이번 퇴역으로 경찰청은 전남지방경찰청에 편성된 헬기 2대 가운데 1대를 제주에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입학 희망학생 22~23일 원서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1학년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전입학 신청은 도내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1학년 재학생으로서 모든 가족의 거주지가 제주시 동(洞) 지역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동(洞) 지역 소재 영주고와 제주중앙고 재학생, 합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1학년으로의 전입학 신청 원서는 22~23일 2일간 도교육청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에서 접수한다. 표성준기자

“난폭운전 단속”... ‘암행순찰차’ 뜬다

일주도로·평화로·번영로서 계도기간 후 10월부터 운영

급격한 차량 증가와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제주에 처음으로 ‘암행순찰차’가 운영된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일주도로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6.4%(59명)가 발생했다. 100km당 사망자도 일주도로는 33.5명으로 제주 도로평균 5.1명의 6.6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방안으로 난폭·암행운전 단속효과가 높은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사고위험이 높은 약성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암행순찰차는 기존 순찰차 1대를 개조해 오는 9월까지 계도·홍보 기간

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우선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암행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에서 활동한다.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이나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이며, 사전에 지정·공개된 장소에서만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안전활동도 병행하게 되며, 차량 측면에 경찰 마크를 부착하고, 근무자의 복장도 경찰복을 착용시켜 경찰임을 알 수 있게 조치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영은 소수의 난폭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학교비정규직 2차 총파업 예고

천막농성 마무리했지만 ‘당국 규탄... 교섭 중단’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청 앞 천막농성을 접었지만 2차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56일차를 맞은 제주도교육청 천막농성을 마무리하지만 교섭을 중단하고 2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총파업 시기는 각급 학교의 방학이 끝난 뒤인 9월쯤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

합은 총파업 이후 열린 중앙쟁의대 책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2차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면서 “총파업 전후로 바뀐 교육당국의 거짓말과 대국민사기극을 규탄하며, 교섭을 중단하고 제2총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4월 1일 집단교섭에 대한 요청을 시작으로 조정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육부는 시작부터 집단교섭 참가를 포기했고, 교육감협의회는 교섭 진전을 지연시키며 파행으로 돌아갔다”며 “총파업 지지여론과 공약이행을 거부하는 교육당국에 대한 규탄의 여론이 모아지자, 교육부가 성실교섭을 약속했지만 총파업이 끝나자 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교섭지연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음식점서 화재 1명 부상

20일 오전 8시 9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 불로 직원 현모(32)씨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서귀포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천장형 에어컨과 건물 내부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문미숙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최고의 기술, 최고의 품질
소방관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
(주)한컴라이프케어 가 지키겠습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소방안전장비는 고도의 기술과 엄격한 제조 과정을 거친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소방안전을 책임집니다